

<2023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구분	이름	직함	근무지
예술창작	윤금노	팀장	노원문화재단
	신동호	실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박준영	팀장	도봉문화재단
지역문화프로젝트	황순주	실장	경기문화재단
	조영신	사무처장	서울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김수미	팀장	중랑문화재단

□ 심사총평

[예술창작]

- 강북의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를 통해 예술창작작품을 지역민(강북구민)들에게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시도가 좋았음. 하지만 다수의 창작품이 지역의 연계성 동떨어진 작품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내용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 실험적이고 재밌는 작품들의 계획안이 접수되었고, 사전에 공간탐방을 통해 지역이해도와 물리적 자원에 대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접수 단체/개인들에 대해 실행 능력을 신뢰함.
- 지원자들의 개인 경험과, 경력을 우선시해 보다, 지역과 얼마나 어우러져 공모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를 가장 우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지원자들의 예산계획을 토대로 운영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핌.

[지역문화예술프로젝트]

- 수행단체의 수행 능력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나, 얼마나 지역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를 통해 단발적이지 않은,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이 필요로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자체 보유한 자원 공간을 활용한 계획안에서는 예산심의를 통해 감가를 진행하였으며, 관내 민간단체 위주의 공간을 활용하고 민관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중점으로 확인하였음.
- 정해진 장르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융복합적으로 시도한 계획안이 눈에 띄었음. 지역과 얼마나 동화되어 진행할지에 대해 사업계획안에 잘 녹아든 계획안이 있는 반면,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에 그치는 계획서도 있었음. 이러한 점이 다소 아쉬웠으며, 강북구를 주제로 혹은 강북구에 일원화된 사업구상을 중점을 계획안 참여자들의 의도들이 흥미로웠음.
- 예산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다소 불균형한 예산계획안과 더불어 과도한 횡수로 지원예산을 가중한 사업계획안이 있었음. 해당 예산계획안을 자세히 살핀 후, 예산심의를 통해 많은 개인/단체를 면밀히 살핀 후, 예산심의를 통해 많은 개인/단체를 선발하였으며, 예산의 균형을 위해 감가또한 심의를 통해 진행함.